

## 기쿠치 노리타카의 묘

기쿠치 노리타카는 기쿠치 가문의 선조입니다. 그의 자세한 생애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많으나, 규슈의 행정 중심지였던 다자이후(현재 후쿠오카현 중서부)에 부임한 고위 관리였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1070년, 노리타카는 현재의 기쿠치 지방에 도착하여 궁정이 소유하는 농경지 '장원'을 감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리타카는 기쿠치라는 성을 사용했고, 이후 기쿠치 강이라고 불리게 된 강가에 성을 구축하고, 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인 와이후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기쿠치 지방은 외딴곳이었지만 벼농사가 왕성한 농업 지대였습니다. 노리타카는 이 비옥한 평야의 동부에 저택을 지어서 기쿠치 강의 교통을 지배하는 전략적인 입지를 확보했습니다. 강에서 시행되는 교역을 독점하고 주변 평야에서 재배된 농작물을 팔아서 기쿠치 가문은 번영했으며, 노리타카가 구축한 저택은 1300년대 후반까지 일족의 본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노리타카의 묘는 저택 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현재의 묘는 1818년에 만들어졌으며, 실제로 유골이 안치된 것이 아니라 공양탑으로 여겨집니다.